

윤두서부터 미디어 아트까지 남도미술 '한 눈에'

광주시립미술관 오병희 학예사 '남도미술사' 펴내



'윤두서부터 미디어 아트까지.' 한국 미술의 뿌리가 되는 남도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광주 시립미술관 오병희 학예연구사가 펴낸 '예술가 열전-남도미술사'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간)다. 정신과 이치를 담은 남도 문화의 전통에서부터 시작해 과학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아트 분야까지 남도 미술의 맥과 대표 작가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책이다.

그린 서양화, '시대를 이야기한 민중미술', '남도의 미술: 동국진체, 도자공예, 뉴미디어 아트'까지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한국화와 서예, 모더니즘 미술, 민중미술 등에 대한 큰 줄기를 살핀 뒤 대표작가들을 소개했다. 한국화에서는 남도 종회의 시조인 공재 윤두서를 시작으로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아산 조방원, 금봉 박행보를 거쳐 남도 채색화의 맥을 이은 '후소회'와 '흔을 담은 열정의 작가' 천경자 화백의 삶까지 다뤘다.

서양화에서는 남도 모더니즘 회화의 기반을 닦은 오지호를 시작으로 임직순, 양인옥, 김영중, 배동신, 백영수, 오승운, 이강하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남도 추상미술의 큰 산인 김환기, 강용운, 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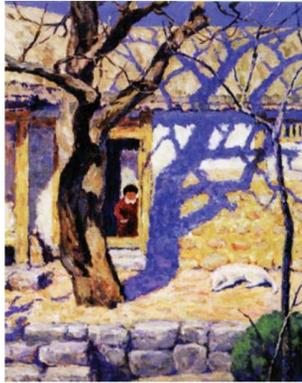
아 작가와 그룹 '예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민중미술에서는 5·18과 함께 대동한 현실참여적이고 시대정신을 놓은 '광주만의 미술'을 소개하고 강연균, 손장섭, 여운, 황재형의 작품을 집중 조명했다.

마지막 '남도의 미술'에서는 '서예의 고장'이기도 한 남도 서예의 대표 '동국진체'를 소개하고 구철우, 안규동, 김용구, 이돈홍의 작품 세계를 세세히 분석했다. 그밖에 남도의 다도문화와 도자, 미디어 아트와 창의도시 광주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책에서는 세심히 챙긴 각 작가들의 컬러도판을 통해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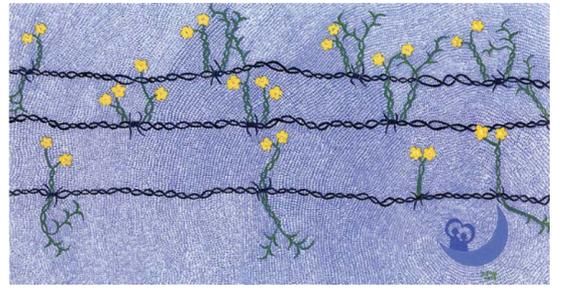
오지호 화백의 손자이자, 오승운 화백의 아들인 오씨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미술학과 미술비평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었다.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를 역임했으며 '광주시립미



오지호 작 '남향집'

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두개의 모더니즘 전 등을 기획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정임 작 '하늘과 땅의 염원이 꽃으로 피어'

여성작가들의 대작 '열 네가지 색깔'

www.현대미술가회 9월 13일까지 옥과미술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현대미술작가들의 대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www.현대미술가회(회장 정정임) 16번째 전시회가 오는 9월13일까지 도입전남옥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옥과미술관 초대전인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개성-열 네가지 색깔'이다. www.현대미술가회모임은 시작은 지난 2003년이다. 당시 지역 갤러리 초청으로 그룹전을 가졌던 여성 작가들 중 일부가 학연 등을 떠나 작가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대작'을 전시하는 그룹을 결성, 무등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연 게 출발이다. 모임이름 'www.현대미술가회'는 'world wide woman'을 뜻한다. 이후 모임은 '포용', '관계', '나의 안락한 소파-경계' 등 다양한 주제로 그룹전을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김양주·류현자·박수옥·백애경·이선희·이영민·임수영·정순아·정정임·정참·조선아·조수경·채경남·한지희 작가가 참여해 다채로운 현대 미술을 선보인다. 문의 061-363-7278. /김미은 기자 mekim@

ACC 창작 작가들 쇼케이스

문화전당 '크리에이터스 인 랩' 8월 5일까지 미디어아트·관객참여 퍼포먼스·설치미술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 대리 이진식, ACC)에 모인 창작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ACC_R '크리에이터스 인 랩 (Creators in Lab)'의 상반기 활동 작가들이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8월 5일까지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ACC는 국제 방문 창작자 프로그램인 'ACC_R'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이번 'Creators in Lab(크리에이터스 인 랩)'은 작가들이 ACC 창작센터에서 2018년 상반기 동안 상주하며 융·복합 콘텐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융·복합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관객참여 퍼포먼스, 설치미술, 인터랙션 아트 등 23인 창작자들의 실험적 예술을 다룬다. 관객들은 '믹스 리얼리티', '미디어 서

피스', '키네틱 아트', '인공지능 비주얼&사운드'의 분야부터 스튜디오제작형과 자유연구형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쇼케이스는 융·복합 콘텐츠 전시 외에도 워크숍, 퍼포먼스, 미디어 월 상영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엄기순 작가의 전자키트 워크숍이 '빛과 소리'를 주제로 ACC 메이커스페이스 랩 스튜디오(ACC민주평화교류원 B1)에서 진행중이다.

박하진 작가와 정자영 작가의 퍼포먼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하진 작가는 8월 4일 오후 4시에 ACC문화창조원 B4 영상실에서 '탱그램 2.0'을 주제로 한 칠교 퍼즐게임을 사운드 퍼포먼스로 구현한다.

또한 관객들은 ACC 미디어월을 통해 히로키 미야자키(일본), 데이비드 브라운(미국), 이 두 명의 작가의 개성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데이비드 브라운 작가는 ACC의 크리에이터 인 랩 비주얼&사운드 랩에서 흑백 패턴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드럼비트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소리를 거대한 미디어월에 이미지화 시켜 색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문의 062-601-4021.

/전은재 기자 ej6621@



▲ 드럼비트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소리를 미디어월에 이미지화 시켜 색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한 데이비드 브라운 작가의 작품(위)과 지난 28일~29일 공감(Empathy)을 주제로 진행된 정자영 작가의 관객참여형 퍼포먼스(아래) <ACC 제공>



폐허가 된 요양병원 '공포연극 6호실'

동산아트홀 9월 24일까지

차원이 다른 오싹함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해줄 '공포연극 6호실'이 유스퀘어문화관이동산아트홀에서 진행중이다.

'공포연극 6호실'은 UCC 제작 동아리원들이 다류를 찍기위해 정신병원을 방문하면서 펼쳐지는 의문스러운 일들을 담아낸 공포극이다.

장수와 희연은 UCC 제작 동아리의 입회 동기다. 두 사람은 포트폴리오 제작 겸 공포 다류를 기획하고 20여년 전 원인 모를 화재로 의문만을 남긴 채 문을 닫게 된 자유요양병원을 취재한다.

자유요양병원을 찾아가는 중, 길을 잃고 헤매던 희연과 장수는 마을사람의 도움으로 폐허가 된 병원을 찾게 된다. 화재로 터난 남은 병원 건물에 유일하게 형태를 갖추고 남아있는 병실 6호실. 그들은 6호실 안에서 오래된 일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일거리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김우진, 서현정, 최윤정, 조태규, 문재용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9월 24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3시·7시, 일요일은 3시에 진행된다. 문의 062-360-8433, 8437. /전은재 기자 ej6621@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